

서원면(書院面)

[위 치]

서원면은 동쪽으로 공근면과 원주시 호저면, 서쪽으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과 청운면, 남쪽으로 원주시 지정면, 북쪽으로 홍천군 남면과 각각 접해 있다.

[연 혁]

본래 원주군(原州郡)의 고모곡면(古毛曲面)인데, 고종 32년(1895)에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횡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리(一里), 분일리(分一里), 이리(二里), 분이리(分二里), 삼리(三里), 사리(四里), 오리(五里), 육리(六里)의 8개 리를 관할하다가, 1937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의하여, 산현리(山峴里)에 있었던 칠봉서원(七峰書院)의 고사적(古事蹟)인 서원사(書院詞)의 이름을 따서 서원면으로 고치고, 일리를 산현(山峴)으로, 이리를 옥계(玉溪)로, 삼리를 창촌(倉村)으로, 사리를 압곡(鴨谷)으로, 오리를 금대(琴垞)로, 육리를 유현(楡峴)으로, 분일리를 매호(梅湖)로, 분이리를 석화(石花)로 고쳤다. 이후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산현리와 매호리 그리고 압곡1리는 용곡리(龍谷里)로 고쳐서 원성군(原城郡) 호저면(好楮面)으로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금대리(琴垞里)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古毛谷面)의 지역으로서 검디, 검두 또는 금대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횡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돌자골, 명천동을 병합하여 오리(五里)라 하다가, 1937년에 금대리로 고쳤다.

가새바우골 [골] 명천동 우측 첫 번째 골짜기로, 가위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건년새골 [골] 먹은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검두 [마을] 금대리 2,3,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곤이고개 [고개] 태미자골에서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곤이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공회당거리 [마을] 금대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공회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느아리골 [골] 박대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돌자골 [마을] 금대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자동’이라고도 한다.

두리봉골 [골] 산지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당터골 [골] 비등목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 안에 넓은 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먹은골 [골] 진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명천동(明泉洞) [골] 검두 동쪽으로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명천(明泉)’이라는 우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명천은 원이 이 골을 지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1개반이 있었다.

박대나무골 [골] 새원고개 옆에 있는 골짜기로, 박달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쥐바우 [바위] 검두에서 압곡리를 가며 좌측 산자락에 있는 바위로, 박쥐가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에 굴이 있는데, 일제 때 공출 당하지 않으려고 이 굴에서 베를 짰다고 한다.

분지고개 [고개] 검두에서 압곡리 압실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비등목 [골] 성애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산지당골 [골] 돌자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원고개 [고개] 돌자골에서 공근면 초원리 새원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석자동(石子洞) [마을] → 돌자골

성애골 [골] 명천동 좌측 첫 번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안골 [골] 돌자골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안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천주교 금대공소 뒤에 있는 골짜기로, 우묵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골 [골] 헛개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은 빈대로 망했다고 한다.

중버덩 [마을] 금대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가운데 버덩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가새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골] 산지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태미자골 [마을] 금대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팽나무재 [고개] 마당터골 위에 있는 고개로, 황성읍 학곡리로 통한다. 팽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횃개골 [골] 유현초등학교 금대분교 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석화리(石花里)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의 지역으로서, 돌꽃바우가 있으므로 돌꽃이 또는 석화(石花)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황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거슬치골, 물안이, 새점터, 스무나리, 약사전을 병합하여 분이리(分二里)라 하다가, 1937년에 석화리로 고쳤다.

[석화1리]

갈버덩 [터]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곳으로, 같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공골 [골] 웃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리골 [골] 안팎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나무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여물골 [골]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스무나리 [마을] 석화1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①예전에 스무나리고개에 도적이 많아서 20명이 모여야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스무나리고개에 좋은 묘터가 있는데, 산이 험하고 숲이 우거져서 이 묘자리를 찾으려면 20명이 20일을 찾아야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십일리라고도 한다.

스무나리고개 [고개] 스무나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아랫스무나리 [마을] 석화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스무나리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땀 [마을] 석화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아랫스무나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터골 [골] 웃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골 안에 좋은 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수골 [골]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약수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웃스무나리 [마을] 석화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스무나리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이라고도 한다.

웃말 [마을] → 웃스무나리

이십일리(二十一里) [마을] → 스무나리

장아터골 [골]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장작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푸나무골 [골] 안땀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짜작나무골 [골] 아랫스무나리에 있는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화2리]

논골 [골] 돌곶이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택지조성하는 곳이다.

돌곶이 [마을] 석화2리 2,3반에 속하는 마을로, 칭칭나무가 바위를 감고 있는 것이 마치 꽃이 핀 것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가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바위는 마구할멈이 똥을 누어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

뒷골 [골] 약산전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돌곶이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배나무골 [골] 약사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별패 [산] 심봉 옆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가파르며 돌산이라고 한다.

부처댕이 [골] 약사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돌부처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시랑골 [골] 새점터에 있는 골짜기로, 쇠스랑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사태가 잘 난다고 한다.

새점터 [마을] 석화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사기점을 하던 곳이라 ‘사기점터’라 하던 것이 줄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점터라고 흔히들 말한다.

새점터 [마을] → 새점터

심봉 [산] 약사전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이 곳에서 산삼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산 [산] 들곶이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약사전(藥師田) [마을] 석화2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약사사(藥師寺)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사절’이라고도 한다.

약사절 [마을] → 약사전

인죽골 [골] 약사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인지골’이라고도 한다.

인지골 [골] → 인죽골

절골 [골] 새점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들곶이 논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방바우골 [골] 새점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골 [골] 약사전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화3리]

거슬치(居瑟峙) [마을] 석화3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양쪽으로 산이 거슬러 올라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②물을 거슬러 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곶은골 [골] 거슬치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곶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현2리 수구대와 통한다.

골물안 [마을] 석화3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물안이 안쪽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깃대봉 [산] 석화1리 스무나리와 골물안이 사이에 있는 산으로, 일제 때 깃대를 뽑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꼬부랑골 [골] 사장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골이 꼬불꼬불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고개 [고개] 골문안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논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도덕고개 [고개] 골문안에서 거슬치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도투마리봉 [산] 거슬치에 있는 산으로, 도투마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등지봉 [산] 작골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운골 [골] 선섬내기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무밭골 [골] 작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물안이(物安里) [마을] 석화3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장골 [골] 석화3리 거슬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꼬부랑골'이라고도 한다.

서낭고개 [고개] 거슬치에서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이 고개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댕이'라고도 한다.

서낭댕이 [고개] → 서낭고개

송이재 [고개] 아래물안에서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송이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장바우 [바위] 유현2리와 경계에 있는 바위로, 송장을 묶어 놓은 것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설에 따르면, 예전에 상여를 메고 가다가 큰비가 와 상여를 내에 떨어뜨려 화채가 맨 위에 걸리고, 다음에 시신, 그 다음에 상여 틀이 차례로 바위에 걸렸다. 그것이 세월이 흘러 바위로 변하여 화채바우, 송장바우, 행상틀바우로 변했다고 한다. 화채바우는 도로 확장공사로 없어지고 송장바우와 행상틀바우만 남았다고 한다. 행상틀바우를 장강바우라고도 한다.

선섬내기 [골] 거슬치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조 50섬을 농사 지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물안 [마을] 석화3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물안이 아래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짓말 [마을] 석화3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언덕골 [골] 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언덕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응달말 [마을] 석화3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응달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골 [마을] 석화3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이 곳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로 인하여 망했다고 한다.

점말 [마을] 석화3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옹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개미새골 [골] 아래물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옆으로 작은진개미새골이 있다.

피미기 [골] 작골에 있는 골짜기로, 유현2리 피미기와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압곡리(鴨谷里)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오리의 형국이라 하여 압실 또는 압곡(鴨谷)이라 한다 하는데, 고종 32년(1895)에 횡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동당미, 불골, 용곡을 병합하여 사리(四里)라 하다가, 1937년에 압곡리로 고쳤다. 1982년 용곡(龍谷)은 원성군 호저면으로 편입되었다.

강아지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이가 물어간 것으로 마을 분들은 생각하고 있다.

개근네 [마을] 압곡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개울 건너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안 [마을] 압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골 안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골아홉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골 입구는 하나인데 들어가면 9개의 골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6.25 때 이 골에 마을 청년들이 은신하였다고 한다. 유현3리 오상동과 통한다.

너래바우골 [골] 골안에 있는 골짜기로, 골에 넓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개 [고개] 압실에서 창촌2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덕을 매고 시체를 임시로 갖다놓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 댕이고개’라고도 한다.

독골이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응달쪽에 있다.

동당미 [마을] 압곡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앞에 있는 낮고 작은 산이 마치 묘같이 둥그랴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산 [산] 불골 마을 앞에 있는 산으로, 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림구렁이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말바우등 [바위] 동당미에 있는 바위로, 곡식을 되는 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바우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말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당미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무당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2리 큰골과 통한다.

물골 [마을] 압곡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압실과 금대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가 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수동’이라고도 한다.

뱀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호랑이가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범바우골 [골] 금대리와 경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비득재 [고개] 골안에서 창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사시나무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사시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댕이고개 [고개] 덕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장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돌이 많다고 한다.

선바우재 [고개] 물골에서 원주시 호저면 고산리 선바위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솔고개 [고개] 압실 마을 사람들이 압실고개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압곡에서 동당미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송이재 [고개] 압실에 있는 고개로, 송이가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동(水洞) [마을] → 물골

신배나무골 [골] 동당미에 있는 골짜기로, 신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심봉 [산] 물골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산삼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싸리밭골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싸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사리 [굽이] 금대리 박쥐바우에서 물골까지 물굽이가 9개라 붙여진 이름이다.

압곡(鴨谷) [마을] → 압실

압실 [마을] 압곡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지형이 오리의 형국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압곡’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24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그 숫자가 줄었다고 한다.

압실고개 [고개] 동당미에서 압실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솔고개라고도 한다.

양당산 [산] 동당미에 있는 산으로, 약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앞산 [산] 압실에 있는 산으로, 마을 앞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백로 및 왜가리의 번식처이다.

용곡재 [고개] 동당미에서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서낭당이 있으며, ‘큰고개’라고도 한다.

움무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절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애미골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중을 묻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처바우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유현3리 오상동과 통한다.

진쟁이골 [골] 개근네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재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오상동을 질러가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취석정 [유적] 물골에 있는 정자로, 조선조 중엽 취석(醉石) 최문발(崔文潑)이 자신의 호를 따서 만든 것이다. 바위면에 ‘취석(醉石)’ 두 글자와 바둑판이 그려져 있다. 현재의 취석정은 1984년 다시 재건한 것이다.

큰고개 [고개] 용곡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용곡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고개라 한다.

큰바우 [바위] 동당미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박서방네 [골] 물골에 있는 골짜기로, 박서방네 만형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재 [고개] 압실에서 창촌2리 큰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고개가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희종골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흙미기 [골] 압실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옥계리(玉溪里)

본래 원주군의 고모곡면의 지역으로서, 앞의 시냇물이 옥빛처럼 흐른다 하여 옥지기라 한다 하는데, 고종 32년(1895)에 횡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산, 사철리, 새잎을 병합하여 이리(二里)라 하다가, 1937년에 옥계리로 고쳤다.

[옥계1리]

가골 [골] 옥지기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제보자는 같이 많으므로 ‘갈골’이던 것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가마디골 [골] 절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이 골은 참나무가 많아 예전에 숲을 많이 구웠다고 한다.

괘달 [골] → 곤달

고향산 [산] 옥지기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고향사(高鄉寺)’라는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곤달 [골] 대산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고무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괘달’이라고도 한다.

구절골 [골] → 절골

대산(大山) [마을] 옥계1리 1,2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마을 뒤에 큰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대산 [산] 대산에 있는 산으로, 산이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대산과 작은대산이 있다. ‘대야산’이라고도 한다.

대야산 [산] → 대산

두란지 [산] 옥지기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두란지골짜기 [골] 새절골에 있는 골짜기로, 두란지 산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대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떼소터 [터] 대산과 옥지기 사이에 있는 곳으로, 예전에 이 곳에서 떼를 엮어서 한강으로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맥작골 [골]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잡곡을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맹맥바우 [바위] → 명명바우

메기바우 [바위] 큰대산 아래 내에 있는 바위로, 메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쏘갈바우’라고도 한다.

명명바우 [바위] 시계바우 아래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되돌아 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바람골 [골] 옥지기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앞에 있으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방갈골 [골] 맥작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배나드리터 [터] 옥지기에 있는 것으로, 마을 앞 내를 건너 다니던 나루터가 있었던 곳으로, 소금배도 다녔다고 한다.

벽장바우 [바위] 대산 앞산에 있는 바위로, 벽장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아우 [바위] → 불암

불암(佛岩) [바위] 앞산에 있는 바위로, 부처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불아우’, ‘시계바우’라고도 한다.

비득바우 [벼랑] 옥지기에 있는 것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흰 산비둘기들이 많았다고 한다.

새절골 [골] 옥지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심사곡’이라고도 한다.

시계바우 [바위] 불암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위 그림자가 오전에는 앞으로 넘어지고,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바로 서 있어서, 예전에 농사일을 하다가 이 바위의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가늠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심사곡 [골] → 새절골

쏘갈바우 [바위] 메기바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쏘가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낙골 [골] → 아흔아홉골

아랫말 [마을] 옥계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대산 아래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흔아홉골 [골] 대산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골까지 포함해서 99개가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안돌이 [바위] 호암 앞 냇가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를 안고 돌아야 물에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산 [산] 대산 마을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옥지기 [마을] 옥계1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앞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옥처럼 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웃말 [마을] 옥계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대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뒷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대산 중심이 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간이상수도가 있다.

절골 [골] 옥지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절골’이라고도 한다.

절터골 [골] 명명바우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돌이 [바위] 안돌이 아래에 있는 바위로, 이 바위를 지나려면 올라갈 때는 기어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바위에 등을 대고 내려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치마베루 [벼랑] 옥지기에 있는 있는 것으로, 벼랑이 치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통골 [골] 대산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하나로 쪽 뻗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행상바우 [바위] 메기바우 위에 있는 바위로, 상여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호암(虎岩) [바위] 옥지기 앞 내에 있는 바위로, 호랑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 속에 잠겨 있다고 한다.

홀통골 [골] 절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좁다고 하며, 대산으로 통한다.

희미기 [골] 새절골안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평평하다고 한다.

[옥계2리]

거룻대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건너땀 [마을] 옥계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내 건너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뒫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현재는 마을 앞에 해당되는데 예전에 마을이 이 골 앞에 있던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명맥바우 [바위] 사일에 있는 바위로, 명맥기가 새끼를 많이 쳐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개미골 [골] 뱀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방씨의 묘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뱀골 [골] 사절리에 있는 골짜기로, 뱀처럼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베들골 [골] 송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굴이 있는데, 일제 때 공출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 굴에서 베를 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복박골 [골] 햇골에 있는 골짜기로, 복바위라고 여기는 바위 두 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사일 [마을] 옥계2리 1,2,3반을 아우르는 마을로, 예전에 백로가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일', '조곡'이라고도 한다.

사절리(沙節里) [마을] 옥계2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냇가에 모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들 [마을] 옥계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 개척이 다른 마을에 비해 늦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일 [마을] → 사일

서우네미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소지기 [들] 사일에 있는 들로, 예전에 논이 아니었을 때 소를 풀어 놓고 풀을 먹이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송골 [골] 사절리 마을 앞에 있는 골짜기로, ①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송곳처럼 골이 뾰족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큰송골과 작은송골이 있다.

수리봉 [산] 사일에 있는 산으로, 천지개벽 때 다른 곳은 모두 물에 잠겼으나, 이 산은 수리가 앓을 수 있을 만큼 남아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앞들 [들] 사절리 마을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킨다.

양지땀 [마을] 옥계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양지쪽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곡(鳥谷) [마을] →사일

지루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르마재 [고개] 사일에서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다둔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지르마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집앞들 [들] 새들에 있는 들로, 마을 앞에 있는 논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큰참나무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참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평풍바우 [바위] 사일에 있는 바위로,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풀베세운골 [골] 뱀골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골에 풀이 많아서 예전에 풀을 베어 세워 말리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햇골 [골] 사일에 있는 골짜기로, 해가 정면으로 뜨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유현리(楡峴里)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의 지역으로서, 느릅나무가 많으므로 느루개 또는 유현(楡峴)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횡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갈매기, 밤골, 복지골, 수구대, 오상골, 배나무정이, 풍수원(豊水院)을 병합하여 육리(六里)라 하다가, 1937년에 유현리로 고쳤다.

[유현1리]

고슴도치골 [골] 용수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고슴도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구나무골 [골] 절터앞 위에 있는 골짜기로, 구남토토리가 열리는 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구나무골과 큰구나무골이 있다.

느루개 [마을] 유현1리 1,2,3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느릅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떡갈매기 [마을] → 떡갈매기

떡갈매기 [마을] 유현1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떡갈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떡갈매기’라고도 한다.

물골 [골] 산지당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흘러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른골 [골] 진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곧게 뻗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치골 [골] 풍수원고개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방치골과 작은방치골이 있다.

배나무골 [골] 느루개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배나무골과 큰배나무골이 있다.

산지당골 [골] 용수골을 오르며 우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삼밭골 [골] 수리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삼(대마)을 많이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판대기 [골] 용수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새풀(억세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재동고개 [고개] 떡갈매기에서 양평군 청운면 성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수리바우골 [골] 물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수리가 새끼를 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구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승지봉 [산] 용수골 정상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지도상에는 성지봉(聖地峰)으로 적혀있다.

싸리골 [골] 바른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싸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약물탕골 [골] 숫가마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약수가 나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골 [골] 느루개에 있는 골짜기로,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용수폭포 [폭포] 용수골에 있는 폭포를 가리킨다.

일안동 [골] 질재등 옆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예전에 마을이 있었다.

절터앞 [골] 용수골을 오르며 좌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조씨물어간골 [골] 떡갈매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호랑이가 밭에 있던 좁쌀 자루를 물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골 [골] 일안동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질재등 [고개] 방치골 옆에 있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창촌리 매남이와 통한다.

풍수원고개 [고개] 유현1리에서 유현2리 풍수원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유현2리]

강릉넘이 [골] 윈터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을 통해서 강릉을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거북바위 [바위] 거북산장 앞에 있는 바위로, 거북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매딸기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고매딸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곶은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곶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석화3리 거슬치와 통한다.

광대바우골 [골] 풍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큰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노랭이터 [터] 수구대에 있는 터로, 예전에 외국인 신부가 이 곳에 머물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독고개 [고개] 윈터에서 양평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도적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뒷골 [골] 풍수원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떡갈고개 [고개] 풍수원에서 유현1리 떡갈매기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떡갈매기고개’라고도 한다.

떡갈매기고개 [고개] → 떡갈고개

목미골 [골] 수구대 안말 우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골이 막혔으며, 썰기처럼 생겼다.

바깥말 [마을] 수구대에서 도로 옆에 있는 마을로, 수구대 안말의 바깥이 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병풍바위 [바위] 석화3리와 경계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병풍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수구대(水口垸) [마을] 유현2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숫가마골 [골] 뒷골 안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가마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숫가마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숫을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심밭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산삼을 캐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 심밭골과 큰심밭골이 있다.

안말 [마을] 수구대 바깥말에서 골짜기 안쪽으로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우무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우뚝하게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터 [마을] 유현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풍수원(豐水院)이란 원(院)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도 기와조각이 나온다고 한다.

절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절골과 큰절골이 있다.

점터 [마을] 수구대 바깥말을 달리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사기를 구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주막거리 [터] 풍수원성당 입구의 도로 옆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전에 주막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중방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큰바위가 있다고 한다. 큰중방골과 작은중방골이 있다.

지당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①골이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 예전에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칭칭나무골 [골] 풍수원성당 뒤에 있는 골짜기로, 칭칭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풍수원 [마을]-유현2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조선시대 때 풍수원(豐水院)이란 원(院)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은 ‘풍수원성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알고 있다.

풍수원성당 [성당] 풍수원에 있는 성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1906년에 착공하여 1907년에 완공되었다. 현재 강원도 지방문화재 69호로 지정되어 있다.

피난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6.25 때 피난을 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피미기 [마을] 풍수원에서 떡갈고개를 가며 우측에 있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풍수원성당을 지을 때 이 곳에서 벽돌을 찍었다고 한다.

호랭이잡은골 [골] 수구대 안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이 골에서 호랑이를 잡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현3리]

가래나무골 [골] 여내골을 올라가며 좌측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가래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거북바위 [바위] 대바위 앞 논에 있는 바위로, 거북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를 작대기로 들쭈시면 마을 사람들이 바람이 난다고 한다.

고사리골 [골] 여내골을 올라가며 우측으로 첫 번째 있는 골짜기로, 고사리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내미 [골] 가래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곰내미와 큰곰내미가 있다.

대니고개 [고개] → 상화터고개

대바위 [바위] 셋골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바위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나거나, 바위 조각이 떨어지면 마을에 큰 일이 생긴다고 한다. 흔들바위처럼 생겼다.

돌탑 [탑] 복지골에 농협 뒤에 있는 탑으로, 마을에 배 형상의 산이 있어서 그 배를 묶어 놓기 위해서 쌓은 것이다. 한 기가 있는데, 날을 잡아 모시는 일은 없다고 한다.

뒷골 [골] 복지골에 있는 골짜기로. 마을 뒤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탄산 [골] 화채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홍천군 남면 시동과 통하는 골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명당 [골] 지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은 농사도 잘 되는 등 살기가 좋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화전정리로 마을이 없다.

밤골고개 [고개] 복지골에서 밤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배나무정 [마을] 유현3리 3반에 있는 마을로, ①예전에 배나무정자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예전에 돌배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③천지개벽 때 나루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목정’이라고도 한다.

밤골 [마을] 유현3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복지골 [마을] 유현3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에 평이 없드려 있는 모양의 산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상화티고개 [고개] 유현3리에서 공근면 초원2리 상화티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대니고개’라고도 한다.

셋골 [골] 유현3리 1반에 있는 골짜기로, 오상동과 싸리골 사이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솔고개 [고개] 유현3리 복지골에서 유현1리 느루개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싸리골 [골] 우무개에 있는 골짜기로, 싸리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밤골 [마을] 유현3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밤골 안쪽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1가구가 있는데 7년 전에 이 곳으로 이주했다.

여내골 [골] 우무개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연내골’이라고도 한다.

연내골 [골] → 여내골

오상동 [마을] 유현3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재상 다섯이 날 명당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개 [마을] 유현3리 4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우계(愚溪) [마을] 암밤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 이 곳에 살고 있는 분이 “우둔한 사람이 순박하다”는 뜻에서 스스로 지었다고 한다.

이목정(梨木亭) [마을] → 배나무정

중방바우골 [골] 지치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비가 많이 올 때면 이 바위로 물이 흘러 15m 정도의 폭포가 생긴다고 한다.

지바우골 [골] 곱내미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지치바우골 [골] 고사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화채바우골 [골] 중방바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상여 뚜껑인 화채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리(倉村里)

본래 원주군 고모곡면의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때 사창(社倉)이 있었으므로 창말 또는 창촌이라 하였는데, 고종 32년(1895)에 황성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도창말, 매나미, 응달말, 장골, 점말, 큰골을 병합하여 삼리(三里)라 하다가, 1937년에 창촌리로 고쳤다.

[창촌1리]

거북바우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검은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곰내미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곰이 넘어 다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군엇 [마을] → 창말

느지목이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다리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소나무와 흙으로 만든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둑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도둑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님이 [마을] → 매남이

마재골 [마을] 매자골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마가 난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매남이 [마을] 창촌1리 1,2반에 속하는 마을로, 용마가 나와 넘어 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 이 곳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창말 남쪽에 있는 창바우에서 장사가 난 것을 역적으로 몰아 잡아 죽였는데, 그 후 이 웅덩이에서 용마(龍馬)가 나와 삼일 동안 장사를 찾으며 울다가 질재로 넘어 갔다고 한다.

매남이고개 [고개] 매남이에서 창말로 넘어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매봉재 [산] 매남이에 있는 산으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매자골 [마을] 창촌1리 6반에 속하는 마을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마재골’이라고도 한다.

방치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유현1리 느루개와 통한다.

복숭아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봉막골 [골] 창말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비득재 [고개] 응달말에서 압곡리 동당미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샘시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샘이 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지개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쇠지개가 나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랫매남이 [마을] 창촌1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매남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무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난리 때 움집을 짓고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수골 [골] 창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 사냥을 할 때 원수가 왔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윗매남이 [마을] 창촌1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매남이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음흥소나무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음산하고, 초여름에도 얼음이 있다고 한다.

응달말 [마을] 창촌1리 5반에 속하는 마을로, 마을이 응달쪽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절터골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말 [골] 응달말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옹기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탕골 [골] 매남이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질재 [고개] 매남이에서 유현1리 느루개로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가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창말 [마을] 창촌1리 3,4반에 속하는 마을로, 예전에 사창(社倉)이 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군엇’이라고도 한다.

창바우 [바위] 창말에서 옥계리로 가는 길에 있던 바위로, 도로확포장관계로 지금은 없어졌다. 전설에, 이 곳에서 장사가 났는데, 역적이 될 우려가 있다 하여 맷돌을 엮어놓아 죽였다 한다. 또, 이 곳에 살던 부지런한 농부가 현몽으로 이곳에서 금 향아리를 얻어 부자가 되어 기념으로 ‘창암(倉岩)이라 바위에 새겨 놓았다고 한다.

햇골 [골] 매자골에 있는 골짜기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골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창촌2리]

검은터버덩 [터] 도창말에 있는 터로, 흙이 검고 곡식이 안 되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곰내미골 [골] 장골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곰이 나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공장 뒤에 있는 골짜기다.

논골 [골] 대장애터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다리골 [골] 장골에 있는 골짜기로, 다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작은다리골과 큰다리골이 있다.

대장애터골 [골] 큰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덕고개 [고개] 창촌2리에서 암실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 전염병으로 어린이가 죽으면 덕을 매고 시체를 올려놓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땡이고개’라고도 한다.

도창말 [마을] 창촌2리 1반에 속하는 마을로, 사창(社倉)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되창말’이라고도 한다.

되창말 [마을] → 도창말

뒷동산 [산] 장골에 있는 산으로, 마을 뒤에 있는 산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말잔등’이라고도 한다.

면화밭골 [골] 셋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면화를 심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말잔등 [산] 장골 뒷동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잔등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매봉재 [고개] 주굴밤나무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삼성당 [터] 창촌1리와 경계에 있는 곳으로, 김, 이, 안씨 등 세 성(姓)이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한다. 후손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당을 짓고 매년 10월이면 제사를 지냈는데, 일제 때 신사터를 이곳에 설치한 까닭에 헐렸다고 한다. 지금은 공덕비가 서 있다. ‘삼성당이’라고도 한다.

삼성당버덩 [들] 삼성당 앞에 있는 들을 가리킨다.

삼성당이 [터] → 삼성당

셋골 [골] 큰골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유현3리 복지골과 통한다.

서낭당이고개 [고개] 덕고개를 달리 부르는 것으로, 예전에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애골 [골] 매봉재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앞산 [산] 장골에 있는 산으로, 마을 앞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애매골 [골] 말잔등 위에 있는 골짜기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장골 [마을] 창촌2리 2반에 속하는 마을로, ①예전에 산에 나무하러 다닐 때 ‘장치기’하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②큰골에 비해서 골이 작아서 ‘작은골’이라 하던 것이 줄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장버덩 [터] 장골에 있는 터로, 예전에 ‘장치기’를 하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장공장이 들어 서 있다.

주굴밤나무골 [골] 논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밤이 알차게 열리지 않는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큰골 [마을] 창촌2리 3반에 속하는 마을로, 골이 커서 붙여진 이름이다.

흙무고개 [고개] 도창말에서 창촌1리 건너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그 이름에 대한 유래는 모른다.

[제보자]

- (김현문, 남, 62세, 금대리 토박이)
- (김일옥, 남, 83세, 경기도 광주 태생으로 60년 전에 금대리로 이주)
- (최학선, 여, 85세, 원주 태생으로 20세에 금대리로 시집 옴)
- (문갑식, 남, 58세, 석화1리 토박이)
- (박학성, 남, 81세, 갑천 태생으로 75년 전에 석화2리로 이주)
- (안덕찬, 남, 71세, 황해도 해주 태생으로 50년 전에 석화2리로 이주)
- (이석순, 여, 79세, 홍천 태생으로 18세에 석화2리로 이주)
- (주순희, 여, 67세, 양구 태생으로 40년 전에 석화3리로 이주)
- (조홍옥, 남, 72세, 석화3리 토박이)
- (신호철, 남, 76세, 유원2리 태생으로 48년 전에 석화3리로 이주)
- (유학현, 남, 77세, 홍천 태생으로 32년 전에 석화3리로 이주)
- (원호상, 남, 74세, 석화3리 토박이)
- (원용화, 남, 66세, 석화3리 토박이)
- (이종대, 남, 62세, 석화3리 토박이)
- (이재천, 남, 49세, 석화3리 토박이)
- (김진숙, 여, 57세, 안흥 태생으로 21세에 압곡리로 시집 옴)
- (최지영, 남, 81세, 압곡리 토박이)
- (최근식, 남, 66세, 충주 태생으로 50년 전에 압곡리로 이주)
- (최지훈, 남, 82세, 압곡리 토박이)
- (한만준, 남, 57세, 옥계1리 토박이)
- (임중식, 남, 67세, 옥계1리 토박이)
- (김용열, 남, 67세, 옥계1리 토박이)
- (김석수, 남, 80세, 옥계2리 토박이)
- (김재경, 남, 67세, 옥계2리 토박이)
- (김영환, 남, 71세, 옥계2리 토박이)
- (허명옥, 남, 67세, 원주 태생으로 35년 전에 유현1리로 이주)
- (최계호, 남, 73세, 유현1리 토박이)
- (이계순, 남, 78세, 경기도 가평 태생으로 57년 전에 유현2리로 이주)
- (이남순, 여, 78세, 원주 태생으로 17세에 유현2리로 시집 옴)
- (김기환, 남, 54세, 경남 밀양 태생으로 7년 전에 유현3리로 이주)
- (정재범, 남, 65세, 우천 태생으로 32년 전에 유현3리로 이주)
- (박명식, 남, 50세, 유현3리 토박이)

(송영식, 남, 80세, 창촌1리 토박이)

(최근식, 남, 58세, 창촌1리 토박이)

(이복재, 남, 72세, 창촌2리 토박이)

(김재문, 남, 68세, 평창 태생으로 44년 전에 이주)

(박정근, 남, 64세, 창촌2리 토박이)